

개심술 180례의 임상적 고찰

중앙 길병원 흉부외과

나명훈*, 도한구*, 장택희*, 임정철*, 조상주*, 백희종*, 이재원**

본 인천 중앙 길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0년 2월부터 1993년 8월까지 개심술 180례를 시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.

1. 개심술 180례중 선천성 심질환 80례, 후천성 심질환 100례였고 남자는 79명, 여자는 101명이고 연령은 생후 4개월부터 72세까지였다.

2. 선천성 심질환 80례중 비 청색군이 73례(91%)에서 3명(4%) 사망하였고, 청색군은 7례(9%)에서 3례(43%) 사망하였다.

3. 후천성 심질환 100례중 판막질환이 51례였으며, 이중 송모판막 질환은 24례, 대동맥판막 질환은 8례였으며, 이중 및 삼중판막질환은 19례였고, 사망은 2례(4%)에서 발생하였다.

4. 후천성 심질환 100례 중 혀혈성 심질환은 28례였으며, 이 중 1혈관 질환이 7례, 2혈관 질환이 8례, 3혈관 질환이 9례였고, 그 외에 4례는 MVR 1례, postinfarction VSD patch closure 1례, ASO 1례, Lt. main coronary a. aneurysm & A-V fistula 1례였으며, 사망은 6례(21%)였다.

5. 180례중 14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은 7.7%였다.

주: *중앙 길병원 흉부외과

**서울 중앙병원 흉부외과